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주 영 하*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한중연장서각’)의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살피는 글이다. 한중연장서각은 조선시대 국가왕실과 민간 사대부 문중의 고전적(古典籍)을 조사·수집·보존처리·관리·연구하는 기관이다. 1981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로부터 조선왕실 고전적이 이관된 이후, 한중연장서각은 국가왕실 고전적의 연구와 함께 민간 사대부 문중의 고전적을 조사·수집해 왔다. 한중연장서각이 2011년 이전에 수행해온 연구 과제 대부분은 국학진흥연구사업과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본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한중연장서각의 인적·물적 여건은 그 전과 달리 본격적인 고전적 종합 연구기관의 면모를 갖추었다. 2019년부터 한중연장서각의 연구자들은 ‘장서각 고전적 관리 시스템(Jangseogak Arch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 이후 JARMS)을 통해서 고전적의 서지·해제·이미지 구축·보존처리상태·수장위치·반출상태 등의 작업을 웹사이트 기반에서 수행하고 있다. JARMS가 내부 연구용 도구라면 웹사이트 ‘디지털장서각’과 ‘한국고문서자료관’은 외부에서 한중연장서각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향후 한중연장서각은 ‘장서각 책의 문화사’ 프로젝트에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서각 책의 문화사’는 ① 책의 생산과 유통, ② 책에 담긴 지식, ③ 책의 물질적 기반인 종이 등의 3분야로 구성된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축적해온 책과 지식에 얹힌 역사는 향후 한중연장서각의 핵심 연구 성과가 될 것이다.

[주제어] 장서각, 한중연장서각, 조선왕실 고전적, 조선시대 사대부 고전적, 장서각 고전적 관리 시스템, 디지털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 장서각 책의 문화사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장기 연구 과제 현황 |
| II. 한중연장서각 소장 자료 현황 | VI. 향후 과제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관장,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 duruju@aks.ac.kr

I. 서 론

본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하 ‘한중연장서각’)의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살피는 글이다.¹⁾ 그 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내놓은 한중연장서각 소장 자료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많다. 하지만 한중연장서각의 역사와 연구 활동, 그리고 향후의 과제에 관한 글은 많지 않다.²⁾ 관련 연구가 적은 이유는 개인 연구자보다 한중연장서각이란 기관 차원에서 이 주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

한중연장서각은 조선시대 국가왕실과 민간 사대부 문중의 고전적(古典籍)을 조사·수집·보존처리·관리·연구하는 기관이다. 한중연장서각의 고전적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축은 조선왕조의 국가왕실 관련 고전적이다. 각종 의궤 및 등록, 왕실보첩, 조선후기 국왕의 문집·저술류, 낙선재본 소설, 대한제국과 이왕직의 자료와 전적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한 축은 민간에서 기증·기탁한 6만 여점과 수집 후 정리 중인 약 10만 5천 점의 고전적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를 비롯한 민간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성책과 고문서가 여기에 속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서울대규장각’),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과 비교하면, 한중연장서각은 조선시대 왕실과 민간의 고문헌을 동시에 소장하고 있는 고전적 전문기관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1975년 당시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의 소장 김기수(金基洙)는 사단법인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학술지 『민족문화』(창간호)에서 장서각(藏書閣)의 역사와 소장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했다.⁴⁾ 김기수의 글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장서각의 연혁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고종황제가 1908년(융희 2)에 당시 궁내부 대신으로 있던 민병석(閔丙奭, 1858~1940)에게 명하여 홍문관·집옥재·춘방 등에 소장된 10만 여 고전적으로 정리시켜 보존케하고, 다시 북한산 행궁 소장본과 무주 적상산성 사고본 3만 여 책을 추가하여, 1915년 창경원(昌慶苑, 지금의 창경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장서각’이라고 이름했다고 적었다.⁵⁾

실제로 장서각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한 이듬해인 1908년에 대한제국의 황실을 회복하고 황실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장각(奎章閣)·홍문관(弘文館)·집옥재(集玉齋)·시강원(侍講院) 등에 있던 서적을 인수관(仁壽館)으로 옮기고 대제실도서관(大帝室圖書館)을 세우려 했고 『제실도서목록(帝室圖書目錄)』⁶⁾이라는 간략 목록도 간행한 데서 시작한다.⁷⁾ 조선총독부는 1911년 이왕직 서무계에 왕실자료를 관리하는

1) 본고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필자는 본고가 동양학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千惠鳳, 「藏書閣의 歷史」,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이종묵, 「장서각 및 수집 고문서 자료의 정리실태와 전망」,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2, 2003; 장서각연구소편, 『藏書閣: 장서각에서 옛 기록을 만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3) 필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현재, 한중연장서각 관장의 보직을 맡고 있다. 이에 한중연장서각 관장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본고에서 살피려 한다. 본고의 집필에는 한중연장서각의 박용만(수석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4) 金基洙, 「藏書閣」, 『민족문화』 창간호, 1975, 68~71쪽.

5) 金基洙, 앞의 논문, 68~69쪽.

6) 宮內府奎章閣圖書課編, 『帝室圖書目錄』, [出版地不明]: [出版社不明], 隆熙三[1909]

7) 옥영정, 「역사와 자료 - 장서·각, 100년의 역사와 새로운 도약-」, 장서각연구소편, 『藏書閣: 장서각에서 옛 기록을 만나다』,

‘이왕직서무계도서실(李王職庶務係圖書室)’을 설치했고,⁸⁾ 1915년 12월 창덕궁 낙선재 동남쪽에 현대식 4층 벽돌집을 짓고 왕실 도서들을 이전시켰다. 그리고 1918년 이 건물에 ‘장서각(藏書閣)’이란 현판을 걸었다.

이종목은 장서각 자료의 형성 과정을 정조 즉위년(1776) 9월 봉모당(奉謨堂) 설립에서부터 보았다.⁹⁾ 봉모당에 봉안되어 있던 어제(御製)·어필(御筆)·어화(御畵)·고명(顧命)·유고(遺誥)·밀교(密敎)·선보(璿譜)·세보(世譜)·보감(寶鑑)·장지(狀誌) 등이 현재 한중연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이 생겼다. 필자는 한중연장서각과 서울대규장각의 역사를 살피는 연구가 두 가지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한중연장서각과 서울대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고전적의 연원을 따지는 작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두 기관 자체의 설립과 연구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이다.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의 규장각과 규장원(奎章院), 그리고 장서각의 역사와 소장 자료 현황과, 지금의 한중연장서각과 서울대규장각의 역사와 연구 현황은 각기 분리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두 기관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본고는 한중연장서각의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후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한다.¹⁰⁾

조선총독부는 1911년 창덕궁 안의 봉모당과 책고(冊庫)들을 철거하고 새로 봉모당과 보각(寶閣)의 건물을 짓고 고전적을 이왕직에 이관했다. 이 봉모당과 보각에는 대한제국의 궁내부(宮內府) 전모과(典謨課)의 자료를 비롯하여 수집·구입 자료 등이 소장되었다.¹¹⁾ 1950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舊皇室財産事務總局) 창경원 사무실의 장서각은 낙선재의 한글소설을 이관 받았다.¹²⁾ 1961년 창경원사무실의 장서각은 신설된 문화재관리국에 소속되었고, 장서각·봉모당·보각의 고전적을 통합·관리하기 시작했다.¹³⁾ 1964년 문화재관리국은 칠궁(七宮)의 고전적을 장서각에 이관했다.¹⁴⁾ 1969년 설립된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는 기존의 장서각 관리 고전적과 함께 1970년 종묘(宗廟)·영릉(英陵)·유릉(裕陵)·명릉(明陵)·온릉(溫陵)·건릉(健陵) 등의 능재실(陵齋室) 고전적을, 1971년 창경원에서 관리하던 묘지 자료 탁본을 인계 받았다.¹⁵⁾ 1981년 11월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정 자료와 궁능 문화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전체 고전적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관했다.¹⁶⁾

한중연장서각의 연구와 과제에 관한 글은 서지학자 윤병태(尹炳泰, 1933~2004)가 1991년에 발표한 「장서각의 연혁과 소장도서」라는 논문이 처음일 것이다. 그는 1981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의 고전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10쪽.

8) 이왕무, 「李王職의 유래와 장서각 소장 이왕직 자료의沿革」, 『藏書閣』 31, 2014, 46쪽. 다만, 이왕직의 장서각에 관한 논의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9) 이종목, 앞의 논문, 2~5쪽.

10) 한중연장서각 소장의 국가왕실 고전적의 연원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千惠鳳, 앞의 논문; 이종목, 앞의 논문과 함께, 李鍾默,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편찬과정」, 『藏書閣』 창간호, 1999; 신명호, 「藏書閣 소장 자료와 宗廟의 역사」, 『藏書閣』 4, 2000; 안미경, 「藏書閣 所藏 『璿源系譜紀略』의 書誌의인 研究」, 『藏書閣』 17, 2007; 김문식, 「18세기 국왕의 왕실자료 편찬과 봉모당」, 『藏書閣』 40, 2018.

11) 千惠鳳, 앞의 논문, 27~29쪽.

12) 옥영정, 앞의 논문, 12쪽.

13) 이종목, 앞의 논문, 11쪽.

14) 옥영정, 앞의 논문, 12쪽.

15) 이종목, 앞의 논문, 11~12쪽.

16) 千惠鳳, 앞의 논문, 90~91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된 만 10년의 해에 발표한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구 장서각사무소에서의 작업을 계승하여 장서각 도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귀중도서들을 영인하거나 「장서각소장회화자료」, 「장서각소장탁본목록」과 같은 부문별 연구편저나 목록을 발간하는 한편, 장서각 구장(舊藏)의 목서(目書)들도 정리하고 있다. 또한 귀중도서 해제를 계속하고도 있다....(중략)...다만 아쉬운 것은 중요도서의 부분(副本)을 만들어 이용에 편하게 하여야 할 것 이란 점과, 귀중 자료들을 부문별로 영인하고 해제를 붙여 소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 이란 점이다. 그리고 구 장서각 사무소에서 「국학자료(國學資料)」를 매월 간행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문화연구원에서도 독립된 도서관보(圖書館報)를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장서각 도서에 관한 연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중략)...또한 정기적으로 장서각 도서의 특별전시회를 열어 그간에 발견된 귀중한 자료들을 연구자나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¹⁷⁾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20년 현재, 한중연장서각에서는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꾸준히 수행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과를 냈다. 소장도서의 목록 및 해제 작업과 영인본 출간도 지속하고 있다. 한중연장서각 단독의 학술지인 『장서각(藏書閣)』은 1999년 5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었으며, 2020년 10월 31일 제44호를 발간했다. 아울러 한중연장서각은 2011년 한국학도서관과 분리하여 독자의 건물을 짓고 전시실을 구비하여 매년 기획전시회와 특별전시회를 개최해온다. 따라서 1991년 윤병태의 바람은 거의 대부분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011년 신축된 한중연장서각에는 당시 국내 최고의 장서각을 신축하면서 당시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5개의 수장고를 갖추었다. 아직 약 25%에 지나지 않지만 인터넷 웹사이트 ‘디지털 장서각(<http://jsg.aks.ac.kr/>)’과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을 통해서 서지·해제와 원본 이미지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장서각의 역사와 소장 자료에 관한 연구는 천혜봉(千惠鳳, 1926~2016)과 윤병태가 집필한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을 꼽을 수 있다.¹⁸⁾ 이 책에서 천혜봉은 장서각의 역사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의 장서시설과 자료 활용에 대해서 살폈다. 윤병태는 장서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왕실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적 특성을 해제 형식으로 집필했다. 그러나 천혜봉과 윤병태의 연구는 198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으로 인수한 왕실자료에 한정된 것이었다.

조선시대 왕실과 민간의 고전적을 포함한 한중연장서각의 연구 현황에 관해 살핀 글은 이종묵의 「장서각 및 수집 고문서 자료의 정리실태와 전망」이다.¹⁹⁾ 이종묵은 한중연장서각 소장 자료를 장서각 자료와 수집 자료로 나누었다. 여기에서의 장서각 자료는 왕실문헌이며, 수집 자료는 민간 사대부 문중의 문헌을 가리킨다. 이종묵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한중연장서각의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그는 논문의 마지막에서 한중연장서각과 서울대규장각의 공동연구의 필요성, 한국본 고도서에 목록에 대한 범국가적 사업, 고문서 등 민간 소장 자료에 대한 범국가적인 컨소시엄 구성 등을 제언했다.

17) 尹炳泰, 「藏書閣의 沿革과 所藏圖書」, 『정신문화연구』 14: 3 통권 44호, 1991, 105~106쪽.

18)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의 特性』,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19) 이종묵, 앞의 논문.

현재 한중연장서각에는 왕실문헌연구실, 고문서연구실, 자료보존관리팀의 3개의 실·팀에 연구직·고전적 사서직·보존처리전문직·촬영기능직·행정사무직 등 30여 명이 배속되어 있다. 시설은 연면적 10,128㎡이며, 지상 3층과 지하 2층의 건물이다. 수장고는 모두 5곳에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2,986㎡에 이른다. 2020년 한중연장서각의 예산은 약 25억 원이다.²⁰⁾ 필자는 본고에서 한중연장서각의 소장 자료 현황, 장기 연구 과제의 현황, 단기 연구 과제의 현황, 그리고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II. 한중연장서각 소장 자료 현황

한중연장서각 소장 조선시대 국가왕실의 고전적 대부분은 1981년 7월 16일 문화공보부로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국유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의 94,104책이 이관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판 42,562책을 비롯하여, 중국판 27,313책, 일본판 13,662책, 고문서 5,184점, 양장잡서 3,795책, 신간도서 1,588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양장잡서와 신간도서를 제외하면 모두 88,721책이다. 한중연장서각에서는 1981년 안춘근(安春根, 1926~1993), 윤석창(尹錫昌) 등 소장자로부터 23,263책의 고서를 구입하였다. 이외에 이선근(李瑄根, 1905~1983)의 유품 중에서 고전적 2,056책이 한중연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표 1〉 장서각 고서 및 고문서 소장 현황(2020년 7월 현재)

구분	구분	책(점)수	이미지(2020년 7월 현재)
국가왕실 고전적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 이관 고서	한국본	42,562
		중국본	27,313
		일본본	13,662
		고문서	5,184
	구입고서	23,263	〈고서〉 8,917종 19,466책 〈고문서〉 15,220점 〈합 계〉 1,386,725면 ※ 웹사이트 〈디지털장서각〉 및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이미지 제공
	하성문고	2,056	
	소계	114,040	
민간 사대부 문중 고전적	기증·기탁 완료	61,766	
	기증·기탁 예정	(약)105,000	
	소계	166,766	
합계		(약)280,806	

20) 이 예산에는 무기계약직 연구원과 인턴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규직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중연장서각 소장의 조선시대 민간 사대부 문중의 고전적은 1997년 전주류씨 수곡종택(全州柳氏水谷宗宅)의 2,635점의 자료를 기탁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 반남박씨 서계종택(潘南朴氏西溪宗宅), 광주안씨 순암종택(廣州安氏順菴宗宅), 동래정씨 동래부원군종가(東萊鄭氏東萊府院君宗家) 등 106개 문중의 66,000여 점이 기증·기탁되어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 수집 후 기증·기탁을 기다리고 있는 고전적은 약 105,000여 점이다.

한중연장서각은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조사·정리하여 목록집·해제집·자료집을 간행하였다. 간행된 목록집·해제집·자료집은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에서 조사·정리한 것과 한중연장서각으로 간행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981년 이전에 간행된 것은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에서, 이후의 간행물은 한중연장서각에서 펴낸 것이다.

〈표 2〉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와 한중연장서각에서 간행한 목록집·해제집·자료집

목록집	해제집	자료집
한국책판총목록(1974)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군사류·(1993)	한국의 고판화(1979)
장서각도서중국판총목록(1979)	장서각도서한국본해제집·지리류·(1993)	명주보월방1, 2, 3, 4, 5(1980)
한국고소설목록(1983)		윤하정삼문취록1, 2, 3, 4(1981)
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1984)		조선조의 의궤(1985)
장서목록-고서편(1991)		장서각소장회화자료(1991)
장서각탁본목록(1991)		
장서각도서일본판총목록(1993)		
7종 7책	2종 2책	5종 12책

1984년에 간행된 『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은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에서 1971년부터 1972년 사이에 조사한 결과이지만, 한중연장서각으로 이관된 뒤 간행되었다. 이 목록집은 당시 천혜봉을 비롯하여 연인원 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여타 목록에 비해 국가왕실자료 정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 받는다.²¹⁾ 자료집에서는 『명주보월방』(전5책), 『윤하정삼문취록』(전4책)이 주목된다. 이 자료들은 한중연장서각의 중요한 도서인 낙선재본 고전소설로 한국고전소설연구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연장서각의 목록집·해제집·자료집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한국학도서관의 홈페이지와 ‘디지털장서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서지 목록에는 부분적인 오류가 상당히 발견된다.²²⁾ 오류의 첫 번째 원인은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에서 작업한 『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1984년)에서 생

21) 千惠鳳, 「藏書中國版目錄編纂委員會報告」, 文化財管理局編輯,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文化財管理局藏書閣貴重本叢書第7輯, 藏書閣, 1974, 33~36쪽.

22) 이종묵, 앞의 논문, 13쪽.

긴 것이다. 목록 작성 때의 오자·탈자와 책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련번호를 매긴 책도 있다. 두 번째 원인은 1998~1999년에 한국전산원 지원으로 행해진 ‘한국학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작업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IMF 경제위기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근로사업을 지원했고, 그 인력이 입력 작업을 하면서 목록인 KOR·MARC(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에 오류가 생겼다. 현재 연구직과 고전적사서직이 오류를 수정하고 있으나, 진척 정도는 매우 느리다.

현재 한중연장서각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은 16mm 네거티브 1,631롤(64,406책), 35mm 네거티브 19,101롤(549,476책)이다. 1롤에 평균 560프레임이 들어 있다고 가정하면 모두 1,160만 9,920 프레임을 소장하고 셈이다. 이 중에는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로부터 이관받은 94,104책의 마이크로필름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조선시대 국가왕실의 고전적은 100%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었지만, 문제는 수집 고문서이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수집 자료 마이크로필름은 16mm 네거티브 1,349롤(52,475책), 35mm 네거티브 8,206롤(457,796책), 35mm 포지티브 374롤(614책)이다. 필사본으로 유일본이 많으며, 그 중 일부는 마이크로필름 촬영 이후 멸실된 고전적도 존재한다.²³⁾

Ⅲ. 장기 연구 과제 현황

1. 국학진흥연구사업 시기(1993년 6월~2008년 12월/총 16년)

국학진흥연구사업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1993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6년간 수행한 연구 과제다. 이 연구 과제는 한중연장서각에 소장된 왕실자료와 전국에 산재한 고문서·고서 등 각종 전적을 조사·수집하여 국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학진흥연구사업은 오늘날 한중연장서각이 수행하는 조사·수집·정리·연구의 고전적 연구의 프로세스를 확립한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1) 장서각 등 고전적 조사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한국학자료해제’, ‘장서각소장사부총서’, ‘낙선재본고전소설총서’ 등의 총서로 간행되었다. 이 외에 ‘고문서 조사연구’의 결과와 함께 별도 간행이 타당한 결과물은 ‘한국학자료총서’로 간행하였다. ‘장서각 등 고전적 조사연구’의 결과물은 성격에 따라 탈초·영인·해제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16년간 총 81종 123책을 간행하였다.

탈초 사업은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가 대표적이다. 이 자료는 황윤석이 10세부터 죽기 2일 전까지 50여 년간 기록한 대표적인 일기다. 지방사·정치사·사회사·문학·천문·지리·

23) 이종목, 앞의 논문, 17쪽. 이종목은 이 글에서 국학진흥연구사업 수집 고문서·고서 촬영목록(MF)을 부록에 〈자료 2〉로 붙였다. 이종목, 앞의 논문, 26~34쪽.

의학·생활사 등의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다만, 난초(亂草)로 작성되어 자료적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중연장서각은 내외 전문가로 하여금 탈초 작업을 수행하여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책씩 총 9책의 정서본을, 2003년에 전체 색인집을 간행하였다.

영인사업은 국가왕실의 자료 중 한중연장서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영인과 함께 상세해제 또는 간략해제를 책의 앞에 넣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영조부터 순종까지 국왕의 별도 문집, 거질의 낙선재본 고전소설, 왕실 인물의 묘지와 표석 등 장서각소장 탁본자료, 왕실 보첩류, 근대건축도면집 등은 한중연장서각이 간행한 대표적인 국가왕실자료의 영인본이다. 해제사업은 장서각 소장 주요 자료군(資料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해제집의 대상은 고소설, 한글자료, 장서각소장의궤, 장서각소장등록, 장서각소장 탁본자료,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왕실자료 등과 같이 국가왕실자료의 성격과 장서각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부록 1〉 참조).

(2) 고문서 조사연구

본 연구는 전국에 산재한 고문서·고서 등 각종 전적을 조사·수집하여 인멸 위기의 자료를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또 디지털가공을 통해 고문서의 자료적 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기증·기탁제도를 마련하여 자료의 보존을 모색하였다. ‘고문서 자료연구’는 16년 간 총 151책을 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고문서의 조사·수집·정리, 고문서·고문헌 탈초연구, 고문서 디지털가공, 해제 등을 고문서 연구 업무 체계가 확립되었다.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은 이 연구 과제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1982년 광산김씨(光山金氏) 오천고문서(烏川古文書)를 시작으로 국학진흥연구사업 이전에도 12책을 간행하였다. 1993년부터 국학진흥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의 성과를 이어서 모두 96책의 『고문서집성』을 책으로 펴냈다. 국내 학계에서 민간 사대부의 고문서를 조사·수집한 결과로는 첫 번째의 체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121집을 출간하였다(〈부록 2〉 참조).

‘한국간찰자료선집’은 2001년 제1집인 ‘정경세편(鄭經世篇)’을 시작으로 이경직(李景稷)·이경석(李景奭), 김상헌(金尙憲), 이관징(李觀徵) 등 조선시대 명현의 간찰 16책을 간행하였다. 2011년 이후 6책을 더 출간하였다(〈부록 3〉 참고). ‘명가의고문서’는 2003년 개론서인 『(조선시대) 명가의 고문서』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진양하씨(晉陽河氏), 진주정씨(晉州鄭氏) 등 8개 가문의 역사와 인물, 대표적인 고서와 고문서를 통해 각 명가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후 2개 가문의 자료를 추가하여 10권을 냈다(〈부록 4〉 참조).

‘고문서 조사연구’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문중의 고서와 고문서를 수집·정리한 뒤 문중에 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반납된 후 관리와 도난의 우려 등으로 소장 문중에서 기증 또는 기탁을 의뢰함에 따라 한중연장서각에서는 기증·기탁제도를 마련하여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다. 16개 가문의 기증·기탁 목록집을 간행하였다. 이외에 수집 고전적 목록집을 2책 간행하였다(〈부록 5〉, 〈부록 6〉, 〈부록 7〉 참조).

국학진흥연구사업은 원본자료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필름, 디지털촬영 등을 통해

원본자료의 사본을 제작하고, 동시에 오염이나 훼손된 자료를 보존처리함으로써 물질적 보존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존처리 업무는 한중연장서각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학진흥연구사업은 왕실문헌과 민간문헌에 대한 본격적인 기초 연구의 출발이었다. 자료의 소장과 관리라는 기존의 단편적인 인식을 넘어 자료의 내용과 가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계에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한국학진흥사업단의 국학기초자료사업(2009년 3월~2019년 2월/총 10년)

한중연장서각에서는 2008년 국학진흥연구사업이 종료된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공모한 ‘국학기초자료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를 지속하여 수행하였다. 이 연구 과제는 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4년 등 총 10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연구 과제는 ‘장서각 왕실문헌 연구기반 조성사업’과 ‘고문서 조사연구사업’의 2개 연구 과제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학 고전 자료를 조사·수집·정리하여 한국학을 심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둘째, 수집·정리된 국학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셋째, 오염과 훼손이 심한 자료를 보존처리하고 안정적인 보존환경 구축 등이었다.

(1) 장서각 왕실문헌 연구기반 조성사업

기존의 국학진흥연구사업은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다루다 보니, 유일본과 선본자료 등 핵심 자료와 분야를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 과제에서는 핵심 연구 분야임에도 기존 연구에서 접근하기 어려웠거나 제외된 자료를 중심으로 ‘국왕자료집성’, ‘능원자료역주’, ‘왕실고문서집성’의 편찬 작업을 수행하였다(〈부록 8〉 참조).

‘국왕자료집성’은 조선왕실의 주요 인물 자료를 국왕 중심으로 분류한 뒤, 자료의 분량과 성격을 고려하여 영인자료집, 심층해제집, 자료해설집(도판, 탈초, 역주, 간략해제)의 형태로 간행하였다.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를 비롯하여 영조의 비빈(妃嬪), 영조의 자손(子孫), 숙종·경종·정조·순조의 자료집 총 20책을 간행하였다.

‘능원자료역주’는 한중연장서각에 소장된 93종의 능원지 중에서 내용과 형식이 정연하며 서술체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12종의 자료를 엄선하여 역주하였다. 표점을 가한 입력원문과 현지조사를 통한 다양한 도판과 색인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태종의 현릉지(獻陵誌), 단종의 장릉지속편(莊陵誌續編), 세조의 광릉지(光陵誌) 등 국왕 10인의 능지를 11책으로 간행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왕릉용어사전』을 편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왕실고문서집성’은 한중연장서각 소장 4,600여 종의 왕실고문서를 내용·형태별로 분류하고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을 엄선하여 탈초·해제와 함께 간행하였다. 왕명(王命)·상주(上奏)·망단(望單)·시장(諡狀)·진설도(陳設圖)·홀기(笏記)와 외교문서, 관안(官案)·통보(通報)·청원(請願) 등의 고문서 등을 정리하였다. 복식발기·패물발기·음식발기 등의 해제 및 영인본은 한중연장서각 왕실고문서 중 가장 특징적인 자료이다.

(2) 한국고문서 조사·연구 및 보존처리사업

이 연구 과제는 한국학 기초연구자료인 고문서, 고서에 대한 ‘조사·수집·정리 및 보존처리’, ‘기초연구 및 자료집 간행’, ‘WEB 자료 공개’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한국고문서의 ‘종합적인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보존처리시스템을 통해 고전적을 안전하게 전승하며, 정리 목록과 원문이미지 및 기초연구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한국학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산하고, 학문 후속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림 1〉 ‘한국고문서 조사·연구 및 보존처리사업’ 흐름도

‘조사·수집·정리 및 보존처리’는 조사와 수집, 자료정리 및 목록화, 보존처리 및 자료촬영 등의 과정을 포괄하여 진행하였다. 영남과 호남과 같이 조사와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물론이고 경기·충청·강원·제주 등의 상대적 취약지역이나, 사찰 및 중요 문중의 자료에 대한 조사·수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00점을 조사하고, 연평균 3,000점을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를 보존처리하고 보존환경을 조성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아울러 마이크로필름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원문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보존처리는 연 1,000점(면), 자료촬영은 연 3,000점을 수행하였다.

‘기초연구 및 자료집 간행’은 학술회의 개최와 자료집 간행으로 포괄하였다. 학술회의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자료 수집의 효과를 증대하였으며, 연구대상지역과 연계하여 연 1회 진행하였다. 자료집은 자료적 특성에 따라 고전적 영인자료집 및 고문서연구총서를 간행하였으며, 연 2책의 영인자료집과 연 1책의 고문서연구총서를 간행하였다. 『고문서집성』은 제96집까지 출판된 국학진흥연구사업의 결과를 이어받아 제97집부터 제123집(楊州 思陵 海州鄭氏 宗家 古文書2)까지 출간하였다. 또 고문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선본자료에 대해 사진, 탈초 등을 수행한 『고문서정신』 6책을 간행하였다. ‘WEB 자료 공개’는 정리 목록 및 원문 이미지 연 3,000건, 학술회의 주제발표 연 5편, 영인자료집 연 2책을 WEB에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을 학계에 제공하고 소장자 및 해당 문증과 소통하였다.

국학기초자료사업은 기존 국학진흥연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계승하면서 핵심자료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종의 전략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국왕자료, 왕실고문서, 고문서집성, 고문서정신, 정보화, 보존처리 등 고전적 소장 기관으로서의 기본 성과를 구축하였다.

(3)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이 사업은 기존의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의 주석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3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 연구자가 집필에 참여하여 학계에 축적된 조선시대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였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실록에 담긴 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디지털 전서사전 편찬의 차세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실록전문사전 편찬’과 ‘연계응용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실록전문사전 편찬 작업에서는 전문용어 3,978항목 200자 원고지 43,225.5매를, 고유명사 1,048항목 200자 원고지 16,800매를 생산하였다. 디지털 전서사전 편찬을 위해 수행된 연계응용기술개발은 인문학 데이터의 활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웹서비스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실록사전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였다. 또 사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망·관청·국혼·흥례 등을 사용자 중심 고해상도 이미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사고(史庫)와 왕릉의 가상현실(VR) 서비스도 구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성과포털(<http://waks.aks.ac.kr/>)’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4)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

이 연구 과제는 한중연장서각 소장 ‘등록(의례류)’의 안내정보 작성, ‘원문텍스트 고도화 작업’, ‘조선왕실 소장 금석문 자료의 DB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등록(의례류) 안내정보는 대중용 역사문화콘텐츠인 국왕의 가례, 공주·옹주·군주의 가례, 조선의 궁궐과 권위, 조선의 왕비 등 4건의 콘텐츠를 200자 원고지 12,000매로 집필하였다. 등록(의례류) 원문텍스트는 204만자를 입력하였으며, 문헌정보 원문고도화를 위해 230만자를 구축하였다. 왕실소장의 금석문자료 DB 구축은 200자 원고지 825매의 서지정보와 200자 원고지 4,300매의 상세정보를 집필하였다. 원본이미지는 3,000컷을 촬영하였으며, 원문텍스트는 23만자

를 입력하였다. 대중용 역사문화콘텐츠 “장서각소장 금석문 개관” “탁본의 제작방식과 전승유형” “조선 후기 대청 금석 교유” “조선의 석각천문도” 등 4건의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IV. 단기 연구 과제 현황

1. 장서각 수집 고문서 기초 연구(2002년 8월~2005년 7월/3년)

이 연구 과제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3년간 수행되었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고문서목록·색인’, ‘수집고문서·고서’, ‘장서각전적’ 등의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 성과는 『장서각 수집 민속관련 고문서 해제』 등 11책으로 간행되었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전국의 고문서 및 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활용하며 단절 위기에 놓인 민간 고문서 및 고서 연구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연구진은 문학·역사학·철학·예술·과학 등 여러 분야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였다. 특히 수집 고문서 목록 및 전산화를 통해 고전적의 정보화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2. 장서각 소장 영조 어제류의 정리 및 해제 연구(2005년 9월~2008년 8월/3년)

이 연구 과제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간 수행하였다. 한중연장서각에 소장된 영조의 어제류 5,506종 5,768책을 대상으로, 목록을 정리하고 해제를 작성하며 원문을 입력하여 자료의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어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작성 시기와 함께 각 어제첩의 특성을 밝혔다. 연구 성과는 전 10책의 『영조어제해제』로 간행되었다.

3. 조선왕실 보첩류의 DB구축 및 왕실구성원 연구(2006년 7월~2008년 6월/2년)

이 연구 과제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간 수행하였다. 한중연장서각 소장된 왕실보첩류 822종 5,280책 원본과 『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의 서지 사항을 대조하여 오류를 잡았다. 또한 새로 작성된 목록에 따라 개별 상세해제를 집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왕실보첩류와 왕실구성원에 대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각자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2년간의 연구결과는 『장서각 소장 왕실 보첩류 목록 및 해제』와 『장서각 소장 왕실 보첩자료와 왕실구성원』의 2책 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4. 근현대 구황실 관련 자료 조사 집성(2014년 9월~2017년 8월/3년)

이 연구 과제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간 수행하였다. 대한제국과 이왕직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무기력하게 몰락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그 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다. 이 연구 과제는 도쿄(東京)의 궁내청과 외무성 외교사료관, 국립국회도서관 등 일본 내 산재한 구황 실자료 소장처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자료와의 통합을 위한 조사·정리와 전근대 왕실사의 통시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DB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V. 자체 예산의 확충과 대중화·세계화

2009년부터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국학기초자료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한정된 예산과 수탁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한중연장서각은 2011년 한국학도서관과 분리하여 독립 건물로 이전하면서 수탁사업과 별도로 정부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과제 수행이 절실했다. 2011년 ‘21세기장서각사업’이란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2012년부터 정부출연금을 한중연장서각의 본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장서각사업’은 한국학 연구기반의 조성, 연구 성과의 집적, 고전적 정보화, 교육 및 대중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① 국가왕실문헌 연구기반 조성, ② 민간사대부문헌 연구기반 조성, ③ 장서각자료연구, ④ 고전적종합정보화, ⑤ 교육 및 대중화 등의 5개 부문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가왕실문헌 연구는 한중연장서각 소장의 국가왕실문헌의 해제를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연구 과제의 결과물은 『장서각한국본해제(藏書閣韓國本解題)·경부(經部)』(1책, 2012년), 『장서각한국본해제(藏書閣韓國本解題)·사부(史部)』(22책, 2013~2019년), 『장서각한국본해제(藏書閣韓國本解題)·자부(子部)』(3책, 2013년), 『장서각한국본해제(藏書閣韓國本解題)·집부(集部)』(1책, 2012년) 등으로 출간되었다.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지만, 『장서각일본본해제(藏書閣日本本解題)』와 『장서각중국본해제(藏書閣中國本解題)』 과제가 2020년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중연장서각 소장의 조선시대 국왕 자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영조 관련 자료에 관한 연구를 ‘영조 어제류의 정리 및 해제 연구’와 ‘장서각 왕실문헌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이어서 『영조대왕자료집(英祖大王資料集)』(6책, 2012년)을 출간하였다.

민간사대부문헌 연구는 기존에 수행해왔던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편찬을 계속하여 101~123권을 출간하였다(〈부록 2〉 참조). 『고문서집성』이 문중에 치중했다면, 이 시기에 발간한 『한국고문서정선(韓國古文書精選)』(6책, 2012~2015년)은 고신(告身)·왕지(王旨)·교지(教旨)·영지(令旨)·조사문서(朝謝文書)·오품이하고신(五品以下告身)·홍패(紅牌)·백패(白牌)·녹패(祿牌)·교서(敎書)·영서(令書)·유서(諭書)·유지(有旨)·유령(有令)·첩정(牒呈)·관(關)·첩(帖)·공신교서(功臣敎書)·녹권(錄券)·회맹록(會盟錄)·사패(賜牌) 등의 고문서 유형으로 출간하였다. 아울러 기왕에 수행해온 『한국간찰자료선집(韓國簡札資料選集)』(총 21책, 2001~2016년)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였다. 사대부의 일기로 1994년에 간행한 『이재난고(頤齋亂藁)』에 『인재일록(忍齋日錄)』(영인본 1책, 2012년)과 『인재일록』(정서본 2책, 2012년), 『야곡일록(冶谷日錄)』

(영인본 2책, 2012), 『야곡일록』(정서본 2책, 2014~2015년)을 간행하였다.

장서각자료연구는 기존의 출판물 중에서 선정 작업을 거쳐 해제와 영인본, 그리고 영어로 번역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해제와 영인본 간행물은 『양문충의록(楊門忠義錄)』(7책, 2011년), 『(1741年)宗廟儀軌續錄』(2017년), 『역주 훈국등록(訓局謄錄)』(11책, 2017년) 등이며, 영문책은 *Jangseogak Archives masterpieces* (2017), *More than wills : Property sistrubution documents of The Josen Dynasty*(2017), *Hangeul: vocies of Diversity*(2018), *Flowering among rocks; sources from the Dongnakdang Hall of the Yeosu Yi Clan*(2018) 등이다. 아울러 한중연장서각 소장 국가왕실문헌 및 민간 사대부문헌 중 학술적·자료적 가치가 높은 고전적을 대상으로 교양서 및 학술서를 발간하고 있다. ‘장서각교양총서’는 2020년 10월 현재 총 39권, ‘장서각학술총서’는 총 10권을 간행하였고 계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고전적정보화사업은 소장 및 수집 자료를 본격적으로 DB화하여 축적하는 데로 나아갔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최소화하고, 컬러스캔과 디지털카메라 촬영을 했다. 디지털자료는 온라인으로 서비스하여 한중연장서각 자료의 연구 확산을 꾀할 수 있었다. 교육 및 대중화사업은 2010년 이전만 해도 한중연장서각이 소홀히 해온 분야였다. 기초연구성과를 공개하고 학계 및 대중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전시회, 영어 한문워크숍, 고문서학교, 장서각아카데미 등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면서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였고, 각종 전시회가 행해졌다. 전시회는 소장 자료 중 선별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매 전시마다 발간한 도록은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전시회와 함께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부록 9〉 참조).

영어 한문워크숍은 2016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주로 영미권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왕실과 민간 사대부 고전적에 관한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였다. 강독반과 번역반 2개를 개설하여 각각 한문 기초 학습과 소장 자료 읽기의 강의를 열었다. 강의 진행 강사는 북미 소재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맡고, 세부 내용에 대한 강의는 한중연장서각의 연구직이 맡았다.

고문서학교는 2008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 현재 11회를 진행하였다. 매년 1회 4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고문서학교의 수강생은 대학원생과 연구자이다. 초창기 20명에서 2019년 40명이 수강하였다. 장서각아카데미는 2013년부터 실시한 대중교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상반기 왕실문화강좌, 하반기 역사문화강좌를 운영하였다. 매 강좌의 수강생은 280명 전후이다. 수강생은 주로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노년층이 주류이지만, 한중연장서각 고전적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Ⅵ. 향후 과제

2021년은 한중연장서각 설립 만 40주년이 되는 해다. 본고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1991년 윤병태의 제안은 2020년 현재 거의 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부터 한중연장서각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

하는 중이다. 2011년 이후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에 상응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너무 많은 편이었다. 한중연장서각의 본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 위주의 기획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의 집중을 통해서 본연의 한중연장서각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한중연장서각의 업무는 고전적 조사연구(왕실문헌 및 고문서), 고전적 관리 운영(고전적 보존처리, 고전적 관리 및 정보화), 장서각 자료 확산(교육 및 전시)의 세 분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1. 장서각 고전적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장서각 · 한국고문서자료관

‘장서각 고전적 관리 시스템(Jangseogak Arch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 이후 JARMS)은 박물관의 유물 관리 시스템에 해당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를 고전적에 부착하고 별도로 문서 데이터를 웹에서 작성하여 자료를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소장 자료에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한중연장서각의 내부 구성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전적의 서지 · 해제 · 이미지 · 보존처리상태 · 수장위치 · 반출상태 등의 작업을 웹사이트 기반에서 하고 있다. 현재 소장 자료의 약 25%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 성과는 앞에서 밝혔던 한국학도서관의 KOR · MARC에 담겨 있는 목록과 해제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과 목록집 · 자료집 · 해제집의 발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JARMS가 내부 연구용 도구라면 웹사이트 ‘디지털장서각’과 ‘한국고문서자료관’은 외부에서 한중연장서각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디지털장서각’은 소장 자료 전체의 약 25%만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완벽한 ‘인터넷 장서각’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로드를 통해서 향후 10년 내에 중요 소장 자료의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고문서자료관’은 한중연장서각 소장의 고문서만이 아니라, 영남 · 호남 · 강원 등의 지역 거점 고문서 센터와 연계하여 한국 고문서의 플랫폼이다. 기왕에 간행한 ‘고문서집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한글편지와 일기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예산과 인력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국고문서자료관’의 자료 확충과 연구 방향 제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중연장서각에서는 2020년부터 아직 기증 · 기탁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약 10만 5천여 점의 민간 사대부 고전적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적인 분류 작업과 보존처리, 그리고 JARMS에 탑재하는 작업이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작업을 기초로 하여 기본 해제 작업을 10년 내 완료할 예정이다. 동시에 앞에서 밝혔던 마이크로필름 중의 민간 사대부 고전적에 대한 자료 정리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작업의 성과는 정기적으로 ‘디지털장서각’과 ‘한국고문서자료관’에 업로드하여 연구자와 일반에 공개될 것이다.

2. 장서각 책의 문화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중연장서각의 운영 및 연구의 아젠더는 ‘장서각 책의 문화사’이다. 서지

학(bibliography)·문화사·사회사 등의 분야가 목적성을 가지고 합쳐진 통합학문으로서 ‘책의 문화사’는 유럽의 학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1998년에 나온 피터 코니츠키(Peter Kornicki)의 『일본의 책(The Book in Japan: a Cultural History from the Beginning to the Nineteenth Century)』은 동아시아 책의 문화사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책의 문화사에서 책의 역사를 다룰 때 사용하는 기본적 방법론은 물질문화사(material history)와 물질문화(material culture)이다.²⁵⁾ 즉, 책이라는 물품의 역사와 문화이다. ‘책의 문화사’는 책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 자체의 물질적 측면도 연구한다.²⁶⁾

한중연장서각의 ‘책의 문화사’ 프로젝트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기획된 내용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아젠다명은 <동아시아 책과 지식의 문화사 연구·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구축>이었다. 이 연구 과제는 책의 독자그룹을 통해 본 지식과 관습의 상관성과 동아시아 책과 지식의 계보도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였고, 더 이상 이 연구 과제는 진척되지 않았다. <표 3>은 동아시아 책과 지식의 계보도 예시이다. 이 계보도에 근거하여 ‘장서각 책의 문화사’가 추진될 것이다.

〈표 3〉 동아시아 책과 지식의 계보도

구분		唐	宋	元	明	淸(17·18C)	19·20C
동 아 시 아 책 의 문 화 사	중 국	• 인쇄술의 여명기 • 당초 공영달이 오경정의 편찬 • 불경의 필사 및 간행 • 중국 남부 남조국에서의 독서인 양산	• 서적수용의 확대 • 인쇄출판문화형성 • 과거제도 정착과 독서인 양산 • 신유학 발흥으로 목판인쇄 성행 • 중국 남부 대리국에서의 독서인 양산	• 목활자 인쇄 실용화 • 사전서 간행 확대 • 송본의 번각본 유통 활발	• 동활자인쇄 실용화 • 목활자 인쇄 확산 • 주자학의 관학화로 사서오경대전 및 성리대전 편찬	• 서적의 축적 다량보급 • 사고전서, 황청경해 편찬 • 중국남부의 전문 지식인 집단을 배경으로 고증학 관련 서적 유통	• 근대 활판인쇄 도입 • 서양서 도입 및 번역
	한 국	• 현존 最古 목판인쇄물 • 당으로부터 한자문명 본격 수입	• 금속활자와 불경 간행 • 고려대장경 편찬 •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 현존 最古 금속활자인쇄 • 원으로부터의 주자학 및 각종 책 수입	• 동활자의 대규모 주조 • 세종시대 국가적 편찬 사업 • 주자학의 조선화 시작 • 조선의 유교화를 위한 각종 교화서 보급	• 양반 지식층의 서적 독점 • 서원/향교를 통한 주자학 관련 서적 보급 • 종족의 일반화와 더불어 족보 유행 • 서화서 도입 • 방각본 출현	• 방각본 본격 유통 • 중국 일본을 통한 근대서양서 도입

24) Peter F. Kornicki, *The Book in Japan: a Cultural History from the Beginning to the Nineteenth Century*, Leiden: Brill, 1998; 오영균, 「책의 문화사에서 보는 책의 나라 조선」, 『藏書閣』 44, 2020, 10쪽.

25) 오영균, 앞의 논문, 10~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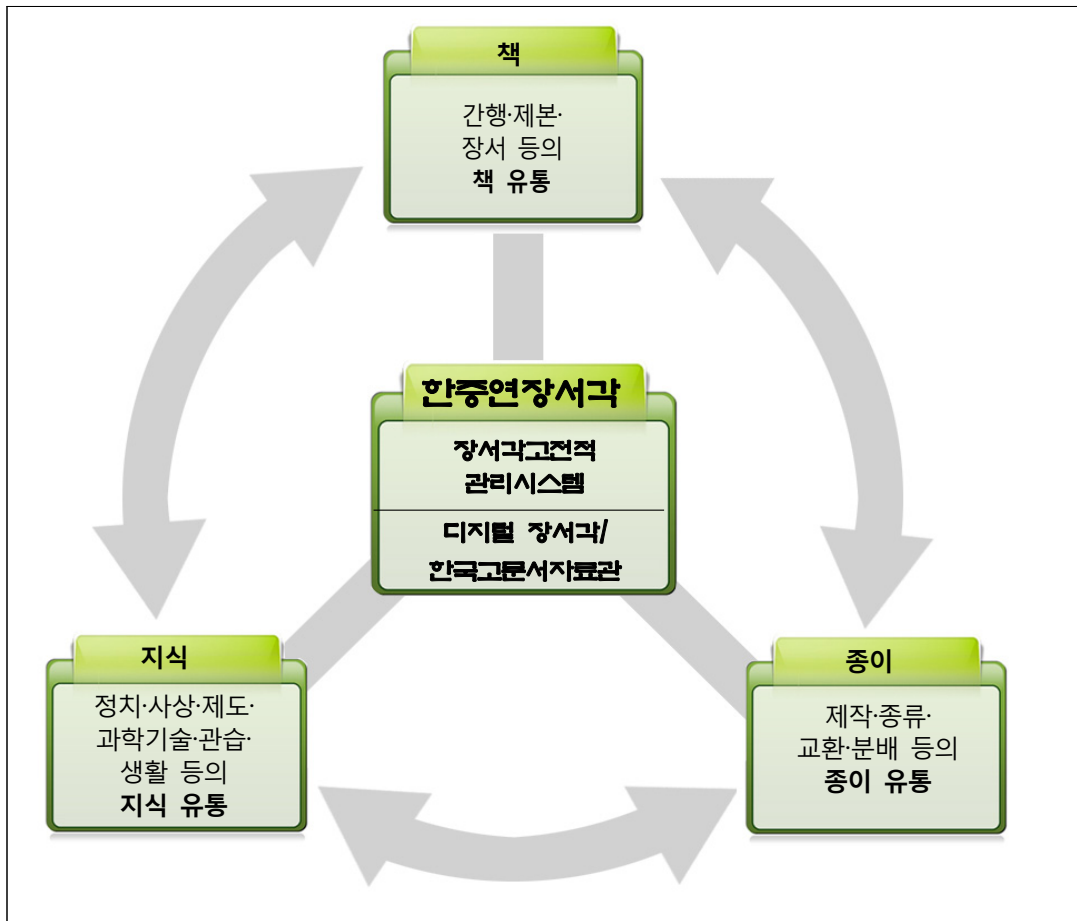
26) 주영하·옥영정·전경목·윤진영·이정원,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삼강행실도를 통한 지식의 전파와 관습의 형성』, 휴머니스트, 2008; 오영균,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한국학 주제별 연구 매뉴얼』(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74쪽; Young Kyun Oh, *Engraving Virtue: The Printing History of a Premodern Korean Moral Primer*, Leiden: Brill, 2013.

구분	唐	宋	元	明	淸(17·18C)	19·20C
인본	• [奈良시대 백만탑다라니경 (8C 후반)] • 담장이 종이와 먹 제작법 전수	• [平安·鎌倉시대 春日版, 五山版 등] • 송 및 고려와의 책 유통	• 쓰시마 큐슈를 통한 고려 및 원과의 책 유통	• [織豊/徳川시대] • 조선동활자·서양 활판도입(16C말) • 駿河版/切支丹版	• 다양한 종류의 상업출판물 유통 • 도판 인쇄물 성행 • 난학을 통한 서양서 번역 시작	• 근대활판인쇄도입 • 서양문화의 본격 수입과 번역서 대량 출간
	• 수도원 및 대학을 중심으로 성경 및 주석서의 필사본 보존 및 유통	• 아랍을 통한 희랍고전 수입 • 신학 철학 등 중세문화 발달	• 목판인쇄술의 도래 • 14C몽골제국으로부터 베네치아 등 도시국가에 • 구텐베르크활판 인쇄술(15C중반)	• 희랍·고마 고전 고대 문화의 르네상스 • 해적판·휴머니스트들의 활약	• 자연과학 및 사회 과학의 발달과 서적문화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각종 책 출판 및 보급 활발
동아시아 지식과 관습의 계보사	• 개방적 당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동아시아·중앙아시아·그리스로마의 전통을 종합한 통합적 지식체계 수립 • 불교의 전성기를 맞아 불교가 지식과 관습에 압도적 영향력 행사 • 동아시아 내부의 지식인 승려 교류 및 상업 교역을 통한 사상·종교·풍속의 활발한 교류	• 불교와의 융합을 통해 유학이 부활함으로써 신유학적 지식체계 성립 • 유학적 지식 체계에 근거한 관습이 성립하고 종족 형성이 시작됨으로써 불교적 내지 도교적 습속 쇠퇴 • 고려와 일본 등 한자문명권의 주변부에서 당송 문화를 대량 수입함으로써 동아시아적 문예전통 구축	• 원제국이 성립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의 이질적인 지식과 습속이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전역에 도입됨 • 신유학·특히 주자학이 득세하고, 종교·과학기술·풍속 등에 관한 지식의 다이제스트화 완성 •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내 지식인들간의 원활한 인적 교류로 사상·종교·풍속의 교류 활발	• 폐쇄적인 명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주자학이 관학화함으로써 주자학 관련 지식이 체계화 되고 종법에 따른 종족 형성이 일반화됨 • 관학화된 주자학에 대한 반발로 양명학이 유행하고 주자학적 예교체계가 도전 받음 • 주자학적 관습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문텍스트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해 실천의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	• 명말 양명학과 청대 고증학의 유행으로 새로운 고전 해석을 위한 지식 체계 성립 • 유럽인의 도래를 통해 서양의 지식 체계가 도입되고 한자문명으로서의 전환 성과 • 조선에서는 주자학의 조선화가 이루어지고, 일본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양과 접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과 관습의 지형도 변화	• 서양의 지식체계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시작 • 제국·식민지·반식민지라는 각각의 상이한 정치경제적 조건 아래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식체계에 일대 혼란 • 전통과 현대의 갈등 속에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토착적 지식체계에 대한 고민과 서양화 지향의 양극단 발생

한중연장서각에서는 2021년부터 ‘장서각 책의 문화사’로 더욱 심화된 연구 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장서각 책의 문화사’는 〈책의 생산과 유통+책에 담긴 지식+책의 물질적 기반인 종이〉의 3분야로 구성된다. 책에 담긴 지식은 기왕에 한중연장서각에서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수행해온 연구 주제다. 책의 생산과 유통은 이 연구의 성과를 한 단계 올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책의 물질적 기반인 종이에 관한 연구는 연구직·고전적사서직·보존처리전문직의 협력을 통해서 수행될 것이다. 한중연장서각은 왕실과 민간 사대부의 고전적을 망라하여 소장하고 있으므로 조선시대 종이의 종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관이다. 책의 물질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자료 축적은 ‘종이의 나라’ 조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²⁷⁾ 아울러 한중연장서각의 보존처리 전문 인력

은 국내 민간 소장 고전적을 가장 많이 다루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 ‘한국고문서응급처리센터’를 설립하여 전국에 산재한 민간의 고문서에 관한 응급 보존처리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그림 2〉 장서각 책의 문화사 연구 구조도

‘책의 문화사 연구 구조도’에 근거하면, 책·지식·종이의 세 축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책은 형태 서지와 관련하여 고전적사서적의 업무이다. 지식은 내용과 관련하여 지식의 유통을 살피는 연구직의 업무이다. 종이는 제작과 종류는 물론이고 가공과 관련하여 지류 보존처리전문직의 업무이다. 이 세 가지의 축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업무는 JARMS와 ‘디지털장서각’ 및 ‘한국고문서자료관’의 촬영과 정보화 담당자의 몫이다.

27) 고전적을 훼손하지 않고 조선시대 종이의 과학적 분석과 자료 축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장서각 책의 문화사 프로젝트는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 연계 프로그램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고전적의 조사·수집·정리·보존처리·연구에 이르는 각 분야마다의 전문 인력과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은 국내의 고전적 소장 기관 전체의 과제이다.²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는 국내 유일의 고문헌관리학을 비롯하여 관련 전공이 여러 개 개설되어 있다. 한국학대학원과 한중연장서각의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 3>의 ‘동아시아 책과 지식의 계보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중국·일본·타이완·베트남과 유럽·북미의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국제 연대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한중연장서각에서는 국제학술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 왔지만, 장기간의 연구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동아시아 책과 지식의 계보도 구축’ 연구 과제는 향후 국내외 고전적 소장 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서양과 다른 맥락에 놓인 동아시아 책의 문화사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코로나19 이후의 장서각 온라인 프로그램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한중연장서각의 교육 및 대중화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연장서각에서는 2020년 가을부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즉, 기존의 대면 프로그램인 전시회, 영어 한문워크숍, 고문서학교, 장서각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연구자들은 영어 한문워크숍과 고문서학교를 통합한 온라인 강좌를 한중연장서각이 아니라 개인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부터 장서각아카데미를 폐지하고 내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던 ‘오픈아카이브(소장 자료 중 1~10점을 선정하여 구성원이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와 통합하여 온라인 강좌 <열린 장서각>을 시작할 계획이다. 온라인 강좌는 대면 강좌에 비해서 수용자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 강좌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소장 자료의 접근을 개방할 것이다. 온라인 강좌 <열린 장서각>은 한중연장서각 구성원이 그 동안 축적한 연구 역량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한중연장서각의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폈다. 1981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에서 한중연장서각으로 고전적이 이관된 이후 조선시대 국가왕실과 민간 사대부 문중의 고전적을 조사·수집·보존처리·관리·연구하는 데 구성원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2011년까지의 연구 과제 대부분은 국학진흥연구사업과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에 예산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정부출연금, 즉 본예산이 책정되면서 한중연장서각의 인적·물적 여건은 그 전과 달

28) 이종묵, 앞의 논문, 20쪽.

리 본격적인 고전적 종합 연구기관의 면모를 갖추었다.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획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본연의 고전적 연구기관의 집중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했다. 2021년은 한중연장서각의 만 40년이 되는 해이다. 향후 ‘장서각 책의 문화사’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조선시대 사람들이 축적해온 책과 지식에 얹힌 역사를 향후 한중연장서각의 핵심 연구 성과로 삼을 계획이다. 이 연구 성과는 국내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유사 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한국학과 동아시아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는데 한중연장서각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부 록

〈부록 1〉 국학진흥연구사업 장서각자료연구 간행도서 현황

〈제1차년도〉 1993. 6 · 1994. 5 (4종 4책)

韓國學資料叢書 1 · 呈才舞圖笏記 ·

韓國學資料叢書 2 · 江北日記 · 江左輿地記 · 俄國輿地圖 ·

韓國學資料叢書 3 · 頤齋亂稿(1) ·

韓國學資料叢書 4 · 致齋日記(1) ·

〈제2차년도〉 1994. 7 · 1995. 6 (6종 8책)

韓國學資料叢書 4 · 致齋日記(Ⅱ) ·

韓國學資料叢書 7 · 勝聰明錄 ·

韓國學資料叢書 3 · 頤齋亂稿(2) ·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洪範道篇 ·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趙素昂篇 Ⅰ ·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李錫庸篇 ·

韓國學資料叢書 6(口訣資料集Ⅰ) · 高麗版本 楞嚴經 ·

韓國學資料解題 藏書閣圖書解題 Ⅰ

〈제3차년도〉 1995. 7 · 1996. 6 (6종 7책)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趙素昂篇 Ⅱ ·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韓國學資料叢書 6(口訣資料集Ⅱ) · 朝鮮初期 楞嚴經 ·

韓國學資料叢書 6(口訣資料集Ⅲ) · 朝鮮初期 楞嚴經 ·

韓國學資料叢書 8 · 決訟類聚補 ·

韓國學資料叢書 9 · 萬國史記 ·

韓國學資料叢書 9 · 東學農民運動篇 ·

〈제4차년도〉 1996. 7 · 1997. 5 (6종 7책)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趙素昂篇 Ⅲ ·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趙素昂篇 Ⅳ ·

韓國學資料叢書 3 · 頤齋亂稿(3) ·

韓國學資料叢書 11 · 臥遊錄 ·

韓國學資料叢書 12・英祖・莊祖 文集・

藏書閣圖書解題(Ⅱ)

韓國學資料叢書 13・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Ⅰ

〈제5차년도〉 1997. 6・1998. 5 (6종 6책)

韓國學資料叢書 15・現夢雙龍記

韓國學資料叢書 16・純祖文集

韓國學資料叢書 17・翼宗文集Ⅰ,Ⅱ

韓國學資料叢書 18・松澗日記

韓國學資料叢書 19・華山奇逢

韓國學資料叢書 3・頤齋亂稿(4)・

〈제6차년도〉 1998. 12・1999. 11 (9종 9책)

韓國學資料叢書 3・頤齋亂稿(5)・

韓國學資料叢書 19・朝野僉載

韓國學資料叢書 20・朝野會通

韓國學資料叢書 21・憲宗・哲宗文集

韓國學資料叢書 22・韓末官人朴始淳日記

韓國學資料叢書 23・高宗文集

韓國學資料叢書 24・純宗文集

韓國學資料叢書 25・慶尙道丹城戶籍大帳(Ⅰ)

韓國學資料解題・藏書閣古小說解題

〈제7차년도〉 1999. 12・2000. 12 (6종 6책)

韓國學資料叢書 3・頤齋亂稿(6)

韓國學資料叢書 25・慶尙道丹城戶籍大帳・19世紀篇(Ⅱ)

韓國學資料叢書 26・英祖文集補遺

韓國學資料叢書 27・朝野記聞

韓國學資料叢書 28・求禮 文化柳氏家 農家日記(Ⅰ)

韓國學資料解題・장서각한글자료해제

〈제8차년도〉 2000. 12・2001. 12 (4종 5책)

韓國學資料解題・藏書閣所藏儀軌解題

韓國學資料叢書 3・頤齋亂稿(7)

韓國學資料叢書 25 · 丹城縣戶籍臺帳 · 19세기편(3)

韓國學資料叢書 25 · 丹城縣戶籍臺帳 · 19세기편(4)

韓國學資料叢書 29 · 閨閣叢書

〈제9차년도〉 2001. 11 · 2002. 10 (3종 6책)

韓國學資料解題 · 藏書閣所藏謄錄解題

韓國學資料叢書 3 · 頤齋亂稿(8) ·

韓國學資料叢書 32 · 寒臯觀外史(4책)

〈제10차년도〉 2002. 11 · 2003. 10 (2종 6책)

韓國學資料叢書 3 · 頤齋亂稿(9)

韓國學資料叢書 33 · 列聖誌狀通紀(5책)

〈제11차년도〉 2003. 11 · 2004. 9 (4종 8책)

花氏忠孝錄(5책)

韓國學資料叢書 13 ·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Ⅱ)

韓國學資料解題 · 藏書閣所藏 拓本資料解題(Ⅰ)

韓國學資料叢書 3 · 頤齋亂稿索引輯

〈제12차년도〉 2004. 10 · 2005. 8 (5종 9책)

낙산재본고전소설총서(Ⅰ) · 河陳兩門錄(5책)

韓國學資料叢書 13 ·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Ⅲ)

韓國學資料解題 · 藏書閣所藏 拓本資料解題(Ⅱ)

韓國學資料叢書 32 · 寒臯觀外史(보유편)

韓國學資料解題 · 藏書閣所藏 拓本資料解題(Ⅱ)

〈제13차년도〉 2005. 9 · 2006. 7 (4종 7책)

낙산재본고전소설(Ⅱ) · 明行貞義錄(4책)

韓國學資料叢書 13 ·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Ⅳ)

藏書閣所藏 王室圖書解題 · 日帝時期 · 1

藏書閣所藏 史部叢書(Ⅰ) · 『敦寧譜牒』(4책, 색인집)

〈제14차년도〉 2006. 8 · 2007. 6 (6종 12책)

낙산재본고전소설(Ⅱ) · 明行貞義錄(5책)

韓國學資料叢書 13 ·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Ⅴ)

藏書閣所藏 王室圖書解題・日帝時期・2

藏書閣所藏 史部叢書(Ⅰ)・『敦寧譜牒』(2책, 색인집)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我國輿地圖

〈제15차년도〉 2007. 7・2008. 5 (4종 12책)

韓國學資料叢書 13・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Ⅵ)

낙선재본고전소설(Ⅲ)・劉李兩門錄(5책)

藏書閣所藏 史部叢書(Ⅰ)・『列聖王妃世譜』(4책, 색인집 1책)

尙房定例

靈壽閣頌과 親臨宣醞圖

〈제16차년도〉 2008. 6・2008. 12 (6종 11책)

藏書閣所藏 王室圖書解題・大韓帝國期

淑賓崔氏 資料集1・日記, 園誌

淑賓崔氏 資料集2・膳錄, 儀軌

淑賓崔氏 資料集4・山圖, 碑文

낙선재본 고전소설총서(Ⅲ)・劉李兩門錄(5책)

近代建築圖面集(도면편, 해설편 2책)

〈부록 2〉『고문서집성』 간행 현황

권	책명/편명	연도
1	光山金氏 烏川古文書	1982
2	(정서본)扶安金氏 愚礪古文書	1983
2·1	扶安 扶安金氏篇	1998
3	(정서본)海南尹氏篇	1986
3·1	海南尹氏篇	1986
4	坡平尹氏篇	1989
5	義城金氏篇(Ⅰ)	1989
6	義城金氏篇(Ⅱ)	1989
7	義城金氏篇(Ⅲ)	1990
7·1	(정서본)義城金氏篇(川上各派)	1990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1990
9	昌原黃氏篇	1990
10	藏書閣篇(Ⅰ)	1990
11	藏書閣篇(Ⅱ)	1990
12	藏書閣篇(Ⅲ)	1990
13	藏書閣篇(Ⅳ)	1994
14	藏書閣篇(Ⅴ)	1994
15	河回 豊山柳氏篇(Ⅰ)	1994
16	河回 豊山柳氏篇(Ⅱ)	1994
17	河回 豊山柳氏篇(Ⅲ)	1994
18	河回 豊山柳氏篇(Ⅳ)	1994
19	河回 豊山柳氏篇(Ⅴ)	1994
20	屏山書院篇	1994
21	靈岩南平文氏篇(Ⅰ)	1995
22	靈岩南平文氏篇(Ⅱ)	1995
23	居昌 草溪鄭氏篇	1995
24	濫溪書院篇	1995
25	德川書院篇	1995
26	居昌鄉校篇	1995
27	靈光寧越辛氏篇(Ⅰ)	1996
28	靈光寧越辛氏篇(Ⅱ)	1996
29	龍淵書院(Ⅰ)	1996
30	龍淵書院(Ⅱ)	1996
31	陝川鄉校篇	1996
32	慶州孫氏篇	1997
33	寧海 載寧李氏篇	1997

권	책명/편명	연도
34	金海鄕校篇	1997
35	巨濟 舊助羅里篇	1997
36	龍仁 海州吳氏篇	1998
37	求禮 文化柳氏篇(Ⅰ)	1998
38	求禮 文化柳氏篇(Ⅱ)	1998
39	海南 金海金氏篇	1998
40	(정서본)廣州安氏·慶州金氏·昌原黃氏篇	1998
41	安東 周村 眞城李氏篇(Ⅰ)	1998
42	安東 周村 眞城李氏篇(Ⅱ)	1999
43	安東 葛田 順興安氏篇	1999
44	安東 全州柳氏篇(Ⅰ)·水谷宗宅·	1999
45	扶餘 恩山 咸陽朴氏篇	2000
46	(정서본)古文書集成 10:藏書閣篇(Ⅰ)	1999
47	晉州 丹牧 晉陽河氏 滄洲後孫家篇(Ⅰ)	2000
48	晉州 丹牧 晉陽河氏 滄洲後孫家篇(Ⅱ)	2000
49	安東 法興 固城李氏篇	2000
50	慶州 伊助 慶州崔氏·龍山書院篇(Ⅰ)	2000
51	慶州 伊助 慶州崔氏·龍山書院篇(Ⅱ)	2000
52	(정서본)古文書集成 15~18:河回 豐山柳氏篇	2000
53	鎭安 程川 全州李氏 西谷李正英後孫家篇(Ⅰ)	2002
54	鎭安 程川 全州李氏 西谷李正英後孫家篇(Ⅱ)	2002
55	堤川 寒水 延安李氏篇	2002
56	安東 松坡 晉州河氏 河緯地 後孫家篇	2002
57	晉州 雲門 晉州河氏篇	2002
58	安山 晉州柳氏篇	2002
59	(정서본)古文書集成 19:河回 豐山柳氏篇(Ⅴ)	2002
60	晉州 晉陽河氏 丹池宗宅篇	2002
61	禮山 閒谷 韓山李氏 修堂古宅篇	2002
62	慶州 蘇亭 慶州李氏篇	2002
63	(정서본)古文書集成 20:屏山書院篇	2002
64	安東金氏 三塘·老稼齋後孫家篇	2003
65	慶州 玉山 驪州李氏 獨樂堂篇	2003
66	慶州 玉山 驪州李氏 章山書院·癡菴宗宅篇	2003
67	羅州 會津 羅州林氏 滄溪後孫家篇	2003
68	(정서본)古文書集成 21:靈岩 南平文氏篇(Ⅰ)	2003
69	寧海 載寧李氏篇(Ⅱ)	2004
70	密陽 昌寧曹氏(五峯書院)·宜寧南氏篇	2004

권	책명/편명	연도
71	利川 豊川任氏・楊州 光州鄭氏篇	2004
72	南原・求禮 朔寧崔氏篇(Ⅰ)	2004
73	丹城鄉校篇	2004
74	(정서본)古文書集成 22:靈岩 南平文氏篇(Ⅱ)	2004
75	南原・求禮 朔寧崔氏篇(Ⅱ)	2004
76	密陽 密城朴氏・德南書院篇	2004
77	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虎溪家門篇	2005
78	居昌 恩津林氏・居昌慎氏篇	2005
79	仁同 仁同張氏 旅軒宗宅篇	2005
80	(정서본)古文書集成 23:居昌 草溪鄭氏篇	2005
81	咸安 杜陵 順興安氏篇	2006
82	寧海 務安朴氏篇(Ⅰ) 武毅公(朴毅長)宗宅	2006
83	懷德 恩津宋氏 同春堂後孫家篇	2006
84	(정서본)古文書集成 24:濫溪書院篇	2006
85	大田 安東權氏 有懷堂宗宅篇	2007
86	瑞山 大橋 慶州金氏篇	2007
87	(정서본)古文書集成 25:德川書院篇	2006
88	尙州 晉州鄭氏 愚伏宗宅篇	2008
89	牙山 般橋 長興任氏篇	2008
90	寧海 務安朴氏篇(Ⅱ) 武毅公(朴毅長)宗宅	2008
91	(정서본)古文書集成 26:居昌鄉校篇	2008
92	漆谷 石田 廣州李氏篇(Ⅰ)	2009
93	星州 碧珍李氏 浣石亭 宗宅篇	2009
94	寧海 載寧李氏篇(Ⅲ)	2009
95	古阜・高敞 光山金氏篇	2009
96	(정서본)古文書集成 27:靈光 寧越辛氏篇(Ⅰ)	2009
97	동래정씨 동래부원군 鄭蘭宗宗宅篇	2010
98	남원 순흥안씨 사제당 후손가편	2010
99	영해 무안박씨 충효당편	2011
100	金泉 直指寺・醴泉 龍門寺 篇	2011
101	興德 平海黃氏 黃胤錫宗家 古文書	2012
102	興德 平海黃氏 黃胤錫宗家 古文書 正書篇	2012
103	尙州 延安李氏 李萬敷宗家 古文書	2013
104	靈光 延安金氏 古文書	2013
105	公州 安東金氏 金尙憲・晉州柳氏 柳忠傑 後孫家 古文書	2013
106	懷德 恩津宋氏 同春堂後孫家 古文書 Ⅱ	2014
107	靈光 寧越辛氏 辛雁望宗家 古文書 Ⅱ:正書篇	2014

권	책명/편명	연도
108	濟州 涯月 水山里 · 中嚴里 · 下加里 古文書	2014
109	高靈 善山金氏 金宗直宗家 古文書	2014
110	於道 晉州姜氏 · 朝天 金海金氏 · 舊左 東來鄭氏 古文書	2014
111	潘南朴氏 朴世堂 · 朴東亮家門 古文書	2015
112	陝川 龍淵書院 古文書(1), 正書篇	2015
113	奉化 西谷 安東權氏 權發宗家 古文書	2015
114	濟州 晉州姜氏 · 谷山康氏 · 金海金氏 · 慶州金氏 · 濟州高氏 · 東萊鄭氏 古文書	2015
115	尙州 忠州朴氏 朴東亨宗家 古文書	2015
116	陝川 龍淵書院 古文書(2), 正書篇	2015
117	陝川 鄉校 古文書 · 正書篇 ·	2016
118	慶州 慶州孫氏 古文書 · 正書篇 ·	2016
119	咸陽 安義 密陽朴氏 朴明搏宗家 古文書	2016
120	安城 保體 東來鄭氏 鄭弘淳宗家古文書	2017
121	固城 玉泉寺 古文書	2018
122	楊州 思陵 海州鄭氏 宗家古文書. 1	2018
123	楊州 思陵 海州鄭氏 宗家古文書. 2	2018

〈부록 3〉 ‘한국간찰자료선집’ 간행 현황

권	책명/편명	연도
1	鄭經世篇	2001
2	全州李氏 石門 · 白軒家門篇 · 이경직 · 경석 ·	2002
3	恩津宋氏 霽月堂篇	2003
4	安東金氏 淸陰家門篇 I · 김상헌 ·	2003
5	尙州 延安李氏 息山 李萬敷宗宅篇 I · 이관징 ·	2004
6	懷德 恩津宋氏 同春堂 宋浚古 後孫家篇 I	2004
7	安東 固城李氏 臨淸閣篇	2005
8	禮山 韓山李氏 修堂古宅篇	2005
9	驪州李氏 退老 雙梅堂 藏本	2006
10	己卯諸賢手筆 · 己卯諸賢手帖	2006
11	慶州李氏 華谷 李慶億 後孫家篇	2007
12	安東 金溪 義城金氏 鶴峯(金誠一) 宗宅篇	2008
13	海南 蓮洞 海南尹氏 孤山(尹善道) 宗宅篇	2008
14	尙州 延安李氏 息山 李萬敷宗宅篇 II · 이관징 · 이옥 ·	2008
15	議政府(楊洲) 潘南朴氏 西溪 朴世堂 後孫家篇	2010
16	旅軒先生手札	2010
17	『詠畫』: 吳道一의 燕行別章	2011

권	책명/편명	연도
18	邵南 尹東奎 書簡	2012
19	金昌協의 農巖眞蹟	2012
20	金性澈의 京城摺紳札	2014
21	晉陽河氏 土山書堂 簡札	2016
22	維鳩 安東金氏 金尙憲 · 金壽稱 後孫家篇	2017

〈부록 4〉 ‘명가의 고문서’ 간행 현황

권	책명/편명	연도
0	《朝鮮時代》 名家의 古文書	2003
1	선비가의 墨香: 진양하씨 창주후손가	2004
2	선비가의 학문과 벼슬: 진주정씨 우복종택	2004
3	선비가의 학문과 지조: 書香世家 진양하씨 단지종택	2005
4	바위틈에 핀 들꽃: 경주 여주이씨 독락당편	2007
5	선비가의 餘慶: 경주김씨 학주후손가	2006
6	선비가의 遺香: 진양하씨 판윤 · 송정후손가	2007
7	節義를 숭상하고 忠情에 뜻을 두다: 무안박씨 무의공후손가	2009
8	首陽世家: 해주오씨 추탄후손가	2008
9	忠을 다하고 德을 쌓다(嚮忠內德): 해주정씨 해평부원군종가	2012
10	조선의 스페셜리스트: 전주이씨 장전군파 삼양부정 후손가	2016

〈부록 5〉 ‘기증 · 기탁목록집’ 간행 현황

종	책명/편명	연도
1	西溪 朴世堂 宗宅 寄託典籍	2002
2	仁同張氏 旅軒宗宅 寄託典籍	2004
3	晉州柳氏 帽山宗宅 寄託典籍	2004
4	固城李氏 臨淸閣 寄託典籍,	2004
5	草溪鄭氏 桐溪宗宅 寄託典籍	2005
6	務安朴氏 武毅公宗宅 寄託典籍	2005
7	安東金氏 · 宜寧南氏 · 晉州柳氏 · 驪州李氏 典籍	2005
8	晉州鄭氏 愚伏宗宅 寄託典籍	
9	密陽 密城朴氏 慕先齋 寄託典籍	2006
10	咸昌 淸州郭氏 · 盈德 務安朴氏 寄託典籍	2006
11	保寧 慶州金氏 寄託典籍	2006
12	廣州李氏 仁同張氏 寄託典籍	2007
13	고부 광산김씨 옥산서원 기탁전적, 보성 보성선씨 기탁전적, 반남박씨 대종중 기탁전적, 안동 전주류씨 수곡종택 기탁전적(2차), 보령 경주김씨 직각종택 기탁전적(2차), 파평윤씨 기증전적	2008

종	책명/편명	연도
14	유희원 기탁전적/다석 유영모선생 문적, 마르티나 도이힐러 기증고문서, 전주이씨 완양부원군 이충원종가 기탁고문서, 김식현 기증고문서/김해 의성김씨 고문서	2009
15	성주이씨대종회 기탁전적, 아산 성주이씨 기탁전적, 아산 장흥임씨 기탁전적, 의정부 반남박씨 기탁전적, 양주 청양김씨 기탁전적	2010
16	霞城 李瑄根 寄贈資料 目錄	2010

〈부록 6〉 ‘수집 고전적 목록집’ 간행 현황

종	책명/편명	연도
1	의령 안동권씨 明石亭 고문헌	2010
2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고문헌	2011

〈부록 7〉 ‘한국자료총서’ 간행 현황

권	책명/편명	연도
1	呈才舞圖笏記	1994
2	江北日記 · 江左輿地記 · 俄國輿地圖	1994
3	頤齋亂藁 I	1994
	頤齋亂藁 II	1995
	頤齋亂藁 III	1997
	頤齋亂藁 IV	1998
	頤齋亂藁 V	1999
	頤齋亂藁 VI	2000
	頤齋亂藁 VII	2001
	頤齋亂藁 VIII	2002
	頤齋亂藁 IX	2003
	頤齋亂藁 X (색인집)	2004
4	致齋日記 I	1994
	致齋日記 II	1994
5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洪範圖篇 ·	1995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趙素昂篇 I ·	1995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李錫庸篇 ·	1995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趙素昂篇 II ·	1996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趙素昂篇 III ·	1997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趙素昂篇 IV ·	1997
6	口訣資料集	1995
	口訣資料集	1996
	口訣資料集	1996

권	책명/편명	연도
7	勝聰明錄	1995
8	決訟類聚補	1996
9	東學農民運動篇	1996
10	萬國史記	1996
11	臥遊錄	1997
12	英祖·莊祖 文集	1997
13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Ⅰ)·고대 고려편	1997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Ⅱ)	2004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Ⅲ)	2005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Ⅳ)	2006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Ⅴ)	2007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Ⅵ)·사가금석문(첩장류)편	2008
14	草澗日記	1997
15	現夢雙龍記(낙선재본 고전소설 총서)	1998
	華山奇逢(낙선재본 고전소설 총서)	1998
16	純祖文集	1998
17	翼宗文集 Ⅰ	1998
	翼宗文集 Ⅱ	1998
18	松澗日記	1998
19	朝野僉載	1999
20	朝野會通	1999
21	憲宗·哲宗文集	1999
22	韓末 官人 朴始淳日記 Ⅰ	1999
	韓末 官人 朴始淳日記 Ⅱ	2003
23	高宗文集	1999
24	純宗文集	1999
25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1(一九世紀篇)	1999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2(一九世紀篇)	2000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3(一九世紀篇)	2001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4(一九世紀篇)	2001
26	英祖文集補遺	2000
27	朝野記聞	2000
28	求禮 文化柳氏家 農家日記 Ⅰ	2000
29	閨閣叢書	2001
30	驪州李氏 星湖家門 典籍	2002
31	예천 맛길 朴氏家日記 1(日用篇)	2002
	예천 맛길 朴氏家日記 2(日記篇)	2004

권	책명/편명	연도
31	예천 맛길 朴氏家日記 3(日記篇)	2005
	예천 맛길 朴氏家日記 4(日記篇)	2006
	예천 맛길 朴氏家日記 5(日記篇)	2007
	예천 맛길 朴氏家日記 6(日記篇)	2007
32	寒皐觀外史 1	2002
	寒皐觀外史 2	2002
	寒皐觀外史 3	2002
	寒皐觀外史 4	2002
	寒皐觀外史 5	2002
33	列聖誌狀通紀 1	2003
	列聖誌狀通紀 2	2003
	列聖誌狀通紀 3	2003
	列聖誌狀通紀 4	2003
	列聖誌狀通紀 5	2003
34	尙州 光州盧氏 蘇齋宗宅 典籍	2003
35	花氏忠孝錄 1 (낙선재본 고전소설 총서)	2004
	花氏忠孝錄 2 (낙선재본 고전소설 총서)	2004
	花氏忠孝錄 3 (낙선재본 고전소설 총서)	2004
	花氏忠孝錄 4 (낙선재본 고전소설 총서)	2004
	花氏忠孝錄 5 (낙선재본 고전소설 총서)	2004
36	龍仁 海州吳氏 楸灘 吳允謙 宗宅典籍 (契會圖와 詩帖)	2004
37	驪州李氏退老雙梅堂編	2006
38	晋州柳氏 西陂柳僖全書 I	2007
	晋州柳氏 西陂柳僖全書 II	2008
39	夾注名賢十抄詩	2009
40	近代建築圖面集 · 도면편	2009
	近代建築圖面集 · 해설편	2009
41	社稷署謄錄 I	2009
	社稷署謄錄 II	2009
42	鶴峯 金誠一 經筵日記	2010
43	李道長의 承政院日記	2010
44	宗廟謄錄 (上)	2010
	宗廟謄錄 (下)	2010

〈부록 8〉 ‘장서각 왕실문헌연구기반 조성사업’ 간행 현황

연구연차	국왕자료집성	능원자료역주		왕실고문서대관
2009	숙빈최씨자료집 1・5	獻陵誌(太宗)		王命・上奏
2010	영조비빈자료집 1・2	莊陵誌續編(端宗)		望單・諡狀・陳設圖・ 笏記・儀註
2011	영조자손자료집 1・3	光陵誌(世祖)		外交類
2012	영조자손자료집 4・5	昌陵誌(睿宗)		官案・別單・成績表 ・履歷書 等
2013	숙종대왕자료집 1・3	宣靖陵誌(成宗・中宗)		通報・報告書・置簿・ 目錄 等
2014	숙종대왕자료집 2・4	康陵誌(明宗) 穆陵誌(宣祖)		請願書・請求書・賣買文書・ 領收證 外
2015	경종대왕자료집 1・2	元陵誌(英祖) 1	『조선시대 왕릉용어사전』 항목 개발 및 원고집필	衣櫛כל 各류 (복식발기류)
2016	정조대왕자료집 1/3	健陵誌(正祖) 1		紉緞・禮單・具物 (복식・패물발기류복식)
2017	정조대왕자료집 2 순조대왕자료집 2	健陵誌(正祖) 2		음식발기류
2018	순조대왕자료집 1	健陵誌(正祖) 3		

〈부록 9〉 전시 개최 현황

연도	전시명	전시기간
2002	조선왕실의 책	
2003	고문서에 담긴 옛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2003.06.25.~01.12.
2004	우리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	2004.11.17.~12.18.
2005	조선왕실의 여성	2005.11.17.~12.18.
2006	한국의 족보	2006.11.27.~12.08.
2008	장서각 명품선	2008.06.27.~07.18.
2011	조선의 국왕과 선비	2011.07.05.~08.31.
	영조대왕	2011.10.06.~11.20.
	우복 정경세	2011.12.20.~2012.01.31.
2012	조선의 공신	2012.05.23.~07.15.
	(상설전) 조선의 국왕과 선비	2012.09.13.~2013.01.19.
2013	(상설전) 조선의 국왕과 선비	2013.03.11.~06.21.
	(특별전) 양동마을 경주손씨	2013.10.08.~11.30.
2014	(상설전) 조선의 국왕과 선비	2014.03.03.~09.30.
	(특별전)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 분재기·공정과 합리의 장을 되짚어 보다	2014.10.20.~2015.01.30.
2015	(상설전) 조선의 국왕과 선비	2015.02.17.~05.30.
	(특별전) 시권, 국가경영의 지혜를 듣다	2015.06.29.~2016.01.31.
2016	(상설전) 조선의 국왕과 선비	2016.03.08.~05.31.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2016.06.29.~12.31.
2017	(상설전) 장서각, 기록문화의 정수	2017.03.20.~06.10.
	(기획전) 다산 정약용, 원본으로 만나다	2017.03.20.~06.10.
	(특별전) 옛사람들의 사랑과 치정	2017.06.29.~12.16.
	(기획특별전) 임청각을 가다, 이상룡을 만나다	2017.11.01.~11.03.
2018	(봄전시) 조선의 국왕과 왕실문화 해주정씨 여인들의 사랑과 이별이야기 임청각을 가다, 이상룡을 만나다	2018.04.02.~06.02.
	(특별전) 봉모(奉謨), 오백 년 조선왕조의 지혜	2018.06.29.~12.15.
2019	(기획전) 천자문, 천 개의 글자를 읽다	2019.03.25.~06.15.
	(기획전) 오백 년 조선왕조의 지혜 장서각의 조선왕조 실록, 국보가 되다	2019.04.25.~08.17.
	(기획전) 임청각, 그리고 석주 이상룡	2019.06.20.~08.17.
	(특별전) 조선왕실의 비석과 지식 탐본	2019.06.29.~12.15.
	(Google Art&Culture) Hangeul, Voices of Diversity	2019.10.09.~현재
2020	(특별전) 기묘명현의 꿈과 우정, 그리고 기억	2020.10.19.~12.19.

〈참고문헌〉

- 宮內府奎章閣圖書課編, 『帝室圖書目錄』, [出版地不明: 出版社不明, 隆熙三[1909].
-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 金基洙, 「藏書閣」, 『민족문화』 창간호, 1975.
- 김문식, 「18세기 국왕의 왕실자료 편찬과 봉모당」, 『藏書閣』 40, 2018.
- 신명호, 「藏書閣 소장 자료와 宗廟의 역사」, 『藏書閣』 4, 2000.
- 안미경, 「藏書閣 所藏 『璿源系譜紀略』의 書誌的인 研究」, 『藏書閣』 17, 2007.
- 오영균,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한국학 주제별 연구 매뉴얼』(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오영균, 「책의 문화사에서 보는 책의 나라 조선」, 『藏書閣』 44, 2020.
- 尹炳泰, 「藏書閣의 沿革과 所藏圖書」, 『정신문화연구』 14: 3 통권 44호, 1991.
- 이왕무, 「李王職의 유래와 장서각 소장 이왕직 자료의 沿革」, 『藏書閣』 31, 2014.
- 李鍾默,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편찬과정」, 『藏書閣』 창간호, 1999.
- 이종묵, 「장서각 및 수집 고문서 자료의 정리실태와 전망」,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2 2003.
- 장서각연구소편, 『藏書閣: 장서각에서 옛 기록을 만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 주영하 · 옥영정 · 전경목 · 윤진영 · 이정원,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삼강행실도를 통한 지식의 전파와 관습의 형성』, 휴머니스트, 2008.
- 千惠鳳, 「藏書中國版目錄編纂委員會報告」, 文化財管理局編輯,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 文化財管理局藏書閣貴重本叢書第7輯, 藏書閣, 1974.
- 千惠鳳, 「藏書閣의 歷史」,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 Kornicki, Peter F., *The Book in Japan: a Cultural History from the Beginning to the Nineteenth Century*, Leiden: Brill, 1998.
- Oh, Young Kyun., *Engraving Virtue: The Printing History of a Premodern Korean Moral Primer*, Leiden: Brill, 2013.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5일에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Research in the Jangseogak Archiv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resent and Future

Joo, Youngha*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research in the Jangseogak Archiv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Jangseogak Archives) and its upcoming tasks. The AKS Jangseogak Archives is an institute that survey, collect, process to conserve, oversee, and study the old books and documents from the court of Chosŏn (1392~1910) and private literati families (munjung). Ever since the Office of Jangseogak at the Bureau of Cultural Properties Preservation transferred the old books and documents of the Chosŏn court to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1981, the AKS Jangseogak Archives has conducted research on the documents of the royal archive on the one hand, and surveyed and collected books and written materials from private munjung on the other. Prior to 2011, the AKS Jangseogak Archives relied its research entirely on the support of the Committee for Promotion of National Learning (Gukhak jinheung yeon'gu sa'eop chjin wiweonhoe)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Han'gukhak jinheung sa'eoptan). Since the 2012, with a drastic budgetary increase for its material and staffing conditions, the AKS Jangseogak Archives has been reshaped into a full-scale research institution of old books and documents. The research staff at the AKS Jangseogak Archives has been carrying out on web-site platforms their projects on bibliographical records, introductions, digital images, states of conservation, archive locations, and availability of the collected old documents through the Jangseogak Arch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 JARMS). Whereas the JARMS is an internal research tool, the web sites, Digital Jangseogak (Dijiteol Jangseogak, jsg.aks.ac.kr) and Archive of Old Documents of Korea (Han'guk Gomunseo Jaryogwan, archive.aks.sc.kr), are the platforms through which scholars can access the materials collected in the AKS Jangseogak Archives from the outside. In the coming years, the AKS Jangseogak Archives plans to focus its research on the project entitled "The Cultural History of Books at Jangseogak Archives," which comprises three areas: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the book, the knowledge contained in the book, and the paper that

* Director, Jangseogak Archives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s the material basis of the book. The AKS Jangseogak Archives will produce the core research achievements on the history of books and knowledge that the people of Chosŏn had accumulated.

[Key Words] Jangseogak, AKS Jangseogak Archives, old documents of the Chosŏn court, old documents of private literati families (munjung), Jangseogak Arch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 (JARMS), Digital Jangseogak, Archive of Old Documents of Korea, The Cultural History of Books at Jangseogak Archives

